

2 뉴스

양캠 도서관 이용률 점차 증가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중앙도서관 이용률이 다시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치지만, 점차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캠퍼스(양캠) 중앙도서관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열람실을 포함한 자료실 이용자 수가 연 26만 3,231명, 국제캠퍼스(국제캠)은 열람실을 포함한 자료실 이용자 수가 연 9만 2,613명을 기록했다. 서울캠은 지난 2020년 14만 2,801명 대비 약 84%, 국제캠은 지난 2020년 4만 3,469명 대비 약 113% 증가한 수치다.

올해에도 중앙도서관 이용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학기 서울캠과 국제캠의 중앙도서관 이용자 수는 각각 14만 8,180명, 5만 5,098명으로 지난 2020년 연인원 이용자 수를 이미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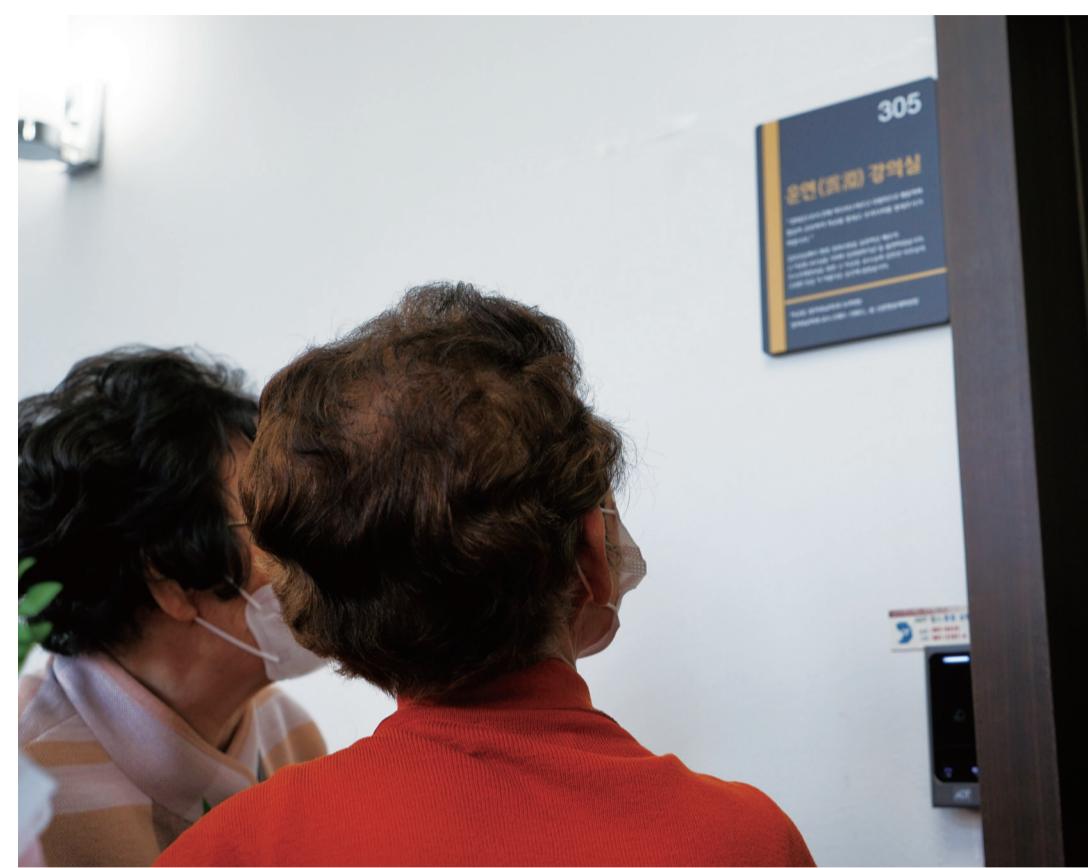
중앙도서관 이용자 수가 늘면서 종이책 대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캠 중앙도서관 종이책 대출 권수는 6만 7,873권으로 지난 2020년 5만 8,813권 대비 약 15% 증가했다. 국제캠 중앙도서관 종이책 대출 권수 또한 3만 8,821권으로 지난 2020년 3만 3,136권 대비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 종이책 대출권수는 서울캠의 경우 3만 6,298권 국제캠의 경우 2만 1,325권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전의 중앙도서관 이용률에 비하면 아직 모자 배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란 상태다. 지난해 서울캠 중앙도서관 이용자 수 26만 3,231명은 2019년 88만 4,104명에 비하면 약 70%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9만 2,613명을 기록한 국제캠 중앙도서관 이용자 수도 2019년 36만 418명에 비해 약 74% 감소한 수치를 보인다.

양캠 중앙도서관은 이용률이 줄어든 원인을 ▲비대면 강의로 인한 방문 인원 감소뿐 아니라 ▲시설 노후화로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대한 수요 불충족 ▲인쇄 자료의 수요 급감 ▲분관도서관이 위치한 각 단과대학 건물의 출입 제한 조치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양캠 중앙도서관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 개선 사업 ▲열람실 운영 정상화 ▲전자자료 확대 ▲비대면 예약 도서대출 서비스 시행 ▲이용자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열람실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대비해 중앙자료실 2층과 제3열람실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학습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캠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지난 환경 개선 사업에 이어 제2열람실, Research Commons, 자료 열람실도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산의 약 70%를 전자책, 전자저널, 웹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전자자료의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故) 이규종 명예교수의 부인 김인선 여사가 '운연(雲淵) 강의실' 현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동건 기자)

정경대학 305호실 '운연' 명명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서울】 정경대학 305호 강의실이 '운연(雲淵)'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정경대학 305호에서는 운연 이규종 교수 현판식이 열렸다. 현판식에는 고(故) 이규종 명예교수의 부인 김인선 여사와 운연장학생 17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월 고 이규종

명예교수 10주기를 맞아 장학금 20억 원을 기부했다. 김 여사가 기부한 장학금은 이규종 교수의 아호를 따 '운연장학금'으로 명명됐다.

고 이규종 명예교수는 1961년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해 30여년간 교단을 지켰다. 재임 중에는 신문방송국장, 사무처장, 출판국장, 신문방송대원장 등을 지내며 대학 발전과 함께 해왔다. 특히 초대 신문방송국장을 지내며 대학주

보 창간을 주도하기도 했다. 사무처장으로는 당시 척박한 환경이었던 캠퍼스 조성 공사를 현장에서 직접 이끌기도 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지난 2018년 Times Higher Education이 발표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김 여사는 "나라의 백년대계인 인재들을 길러내는 경희학원을 축복한다"며 "모든 학문과 기술이 활용되지 않고 지식의 결핍으로 낭패되는 일 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상 경희 학생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크게 성공했을 때 그 열매를 경희학원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운연장학생을 대표해 김 여사에게 민서현(행정학 2019) 씨는 "이렇게 부군의 애정이 깊은 건물에서 마음껏 수학할 수 있어 감사할 뿐"이라며 "운연장학생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과 경희대를 빛낼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2년 대학 기본훈련 추가일정 안내

훈련일정 : 2022. 11. 29(화)

- 가. 훈련일자는 30일전 부과/ 홍보내용 발송(이메일, 경희톡, SMS 문자)
- 나. 올해부터 소집통지서는 훈련 22일전(11. 07) 전자문서로 송달 예정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문자순으로 5단계 송달)

훈련장소 : 금곡예비군훈련장(2훈련장) / 09시 이후 도착자 입소 불가

이동방법

- 가. 통합출발 : 청운관 앞 07시 40분까지 집결(07:50분 출발)
- 나. 개별출발 : 개인차량, 대중교통 탑승 시 도농역 하차 및 1번 출구 30번, 23번, 93번, 1~4번 탑승 → 금곡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약 20분 소요)

훈련일 조정 희망자는 본인 일정 22일전까지 예비군연대로 변경 요청

*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휴일 또는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하여 이수 가능

복장대여 신청 : 훈련 2일전 예비군연대로 신청 가능(전화)

* 대여품목 : 전투모, 전투화, 전투복

훈련 당일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올해부터 모바일 신분증 가능(PASS앱, 모비일신분증)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입소 후 훈련 간 휴대폰 사용은 훈련부대장 통제하 휴식, 중식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 가능 (미준수 시 강제 퇴소 조치)

경희대학교(서울) 예비군연대

2022-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1. 실습 기간 : 2022.12.22.(목) ~ 2023.02.28.(화)

2. 학생 참여 기준

- 가. 현장실습 진행 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
 - * 단,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 범위 내에서 단기 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
 - 나.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 현장실습 참여 불가
 - 다.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3. 신청 방법

- 가. 신청 및 선발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학과별 학생 심사	기관별 학생 선발
1차	2022.10.13.(목)~ 2022.10.27.(목)	2022.11.01.(화)~ 2022.11.07.(월)	2022.11.08.(화)~ 2022.11.09.(수)	2022.11.11.(금)~ 2022.11.17.(목)
2차	2022.11.07.(월)~ 2022.11.17.(목)	2022.11.22.(화)~ 2022.11.28.(월)	2022.11.29.(화)~ 2022.11.30.(수)	2022.12.02.(금)~ 2022.12.09.(금)

나. 신청방법 :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실습기관 조회 후 신청

- 1) 전공 유관 현장실습 원칙에 따라 본인의 본전공/다전공 모집 중인 기관만 조회 가능
- 2) 각 차수별 학생 신청 기간에 기관 리스트 확인 가능
- 3) 한 차수당 하나의 기관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 4) 기관별 운영계획 및 모집요강을 면밀히 확인 후 지원

4. 문의처 : E-mail. intern@khu.ac.kr, Tel. 서울C 02-961-2352, 국제C 031-201-3925

※ 2022-겨울학기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

경희대학교 LINC 사업단

LINC 3.0 사업단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